

내가 생각하는 한일교류

伊庭 鈴乃 (立命館宇治高等学校)

내가 한국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때 처음 들은 빅뱅의 노래를 통해서였다. 그 노래는 당시 내가 보고 있었던 드라마에서 나온 노래였다. 처음에는 그 노래만 듣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노래도 듣게 되었고 나는 점점 빅뱅이라는 그룹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을 보게 됐고 다른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듣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하고 싶어져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한국인과 여러 방법을 통해 교류도 시작했다. 이 에세이를 통해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와 내가 유학한 뉴질랜드에서 만난 한국친구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가한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는 한 장소에서 1주일동안 한중일 세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서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교류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캠프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됐고 우리 한국어선생님이 아닌 한국인한테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했다. 나의 한국어가 통해서 친구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고 동시에 그동안 한국어를 배워 온 것이 드디어 빛을 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 캠프에서 나는 다른 일본친구들보다도 많은 한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연락하면서 만날 정도로 친한 친구가 많이 생겼다. 그 캠프를 통해 얻은 추억과 친구들은 지금 나에게 너무 소중한 보물과 마찬가지로.

두번째로 나는 작년에 뉴질랜드에서 1년동안 유학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도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유나라는 친구하고 친했다. 그 친구는 나하고 동갑이고 홈스테이하는 집도 가까웠기 때문에 매일 같이 학교를 다녔다. 가끔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한국음식도 만들어 먹었다. 내가 뉴질랜드를 떠나는 전날에도 같이 지냈고 편지도 받았다. 그 때 내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유나라를 만나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나는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아직 많은 벽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 사실 그 벽은 낮은 것이며 마음을 통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지금 친구가 된 우리가 계속 서로에 대해 이러한 감정과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어른이 된다면 한일관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친구들과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 지켜 나가고 싶다. 또 나는 한국어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너의 꿈은 뭐야?

松本 早莉奈 (関東国際高等学校)

나는 지난 봄에 한국에 한 달 동안 유학을 갔다 왔다. 거기서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한국 학생과 교류를 했다. 우리 나라 문화에 대해 말하거나 취미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보냈다. 그때 내가 가장 놀란 것은 공부 이야기였다. 일본과 한국은 닮은 점이 많다고 들었지만 공부에 대한 자세는 전혀 달랐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자습을 한 후에 수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4 시 정도까지 수업을 듣고 저녁을 학교에서 먹고 10 시 정도까지 "야자"라는 자습시간을 강제적으로 한다고 들었다.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방과 후 학원에 가서 밤까지 공부하는 것이 보통 한국 고등학생들의 일상이다. 일본의 고등학생은 한국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적다고 생각한다. 왜 그만큼 공부를 하는가 신기해서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해봤다. 그랬더니 모두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좋은 대학교에 못 가면 좋은 곳에 취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교류했을 때 대부분이 나에게 질문했다. "너의 꿈이 뭐야?" 그 때 당황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장래의 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한국의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장래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너의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은 후부터 나는 진지하게 내 꿈을 찾고 있다.

응원으로 알아보는 한일 우호

三嶽 佳菜 (神奈川県立横浜国際高等学校)

한국이라고 듣고 생각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음악과 공부입니다. 음악은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일본에서도 한국의 수능을 보도합니다. 그 대 시험장에 경찰차로 온 학생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것에서 공통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원입니다. 그 응원을 알아보고 이해를 하면 한일 우호의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J-POP 이라는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위해 음악방송을 보러 가거나 선물을 주거나 해서 응원을 합니다. 때로는 큰 꽃다발을 선물하는 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게 응원합니다. 물론 선물, 편지 등 일본에서 하는 응원도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연탄, 쌀 등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돌에게 주기에는 생활감이 넘치는 것도 선물을 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선물들은 그 아이돌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잘 이해가 안돼서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것은 그 아이돌이 쓰는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 기부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아이돌의 이름으로 숲을 만들거나 학교를 세우는 등 세계나 환경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능 때도 일본과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수능은 수험생만 가서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한국 수능은 후배가 대학 교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힘내세요!"라고 외치면서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가족이나 후배들은 조용히 집에서 기다립니다.

왜 가까운 일본과 한국이 응원만으로도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두 나라에서는 남을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음악에서는 상대가 제일 중요하고 공부와 관련된 수능 시험 때는 상대가 집중하도록 조용히 마음 속으로 응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와 가족, 후배들에게도 신경을 쓰고 또 기분 좋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해서 응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돌이나 선배를 응원만으로도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면 이보다 큰 문화의 차이도 꼭 있을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 차이에 당황하지만 먼저 이해를 해 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 할 수 있게 되어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일교류

富山 真裕美 (関東国際高等学校)

나는 지금까지 많은 한일교류를 해왔다. 일본에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 고등학생들과 한 교류회, 한국에 가서 한국 대학생들과 주제별 학습을 하거나 홈스테이를 한 적도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들의 홈스테이를 받아들인 적도 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일 교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었다.

한국의 학생들과 교류를 하기 전에는 한일 교류란 언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나 경제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보통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교류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 한일 교류를 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나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생각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그 때 한일 교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말을 모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단어만 전하거나 그림만 그려도 뜻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야기의 내용보다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처음 교류한 친구하고 지금도 많이 연락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는 같이 놀면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나는 그때 행복을 느꼈다. 상대도 나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국제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한일교류는 내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한일 교류를 경험해보길 바란다.

지금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만, 양국의 대표들이 먼저 한일 교류를 하고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들면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언어나 상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서로가 느끼면 국가 간에도 서로 사이 좋게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한일 교류는 상대를 이해하는 지름길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고등학생과 일본의 고등학생

小林 未佳 (関東国際高等学校)

나는 이번 봄방학에 학교의 한국단기유학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과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 홈스테이와 교류회였다. 홈스테이가 토, 일, 월요일의 2박 3일이었고, 월요일에 호스트인 친구와 같이 학교에 가서 교류회와 수업 참관을 했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느꼈던 한국 고등학생과 일본 고등학생의 일상에 대해 써보고 싶다.

첫 번째는 생활이나 평소의 모습이다. 이것은 한국도 일본도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우리는 토요일에 에버랜드에 가고, 일요일은 쇼핑을 하고 스티커 사진을 찍고 와플을 먹었다. 그것들 다 우리가 일본에서 노는 느낌이랑 아주 비슷했다. 그리고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어머니가 빨리 하라고 조금 화를 내셔서, 호스트 친구와 싸우고 있었다. 나도 아침에 자주 어머니와 그런 싸움을 하니깐 이런 느낌으로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의 일상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한국은 공부에 대한 열기가 우리보다 더 높은 것 같다. 한국에서는 수능을 보고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친구들은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 그 열기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자다. 나는 처음에 야자에 대해 들었을 때 많이 놀랐다. 밤 9 시나 10 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지 않도록 서서 수업을 받는 책상이 교실에 있어서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일본 학생들과 같이 대화를 하거나 과자를 먹거나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수업 때는 정말 진지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지만 역시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유학에서 홈스테이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나이도 가깝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고등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번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공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일본과 한국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일 우호를 바라면서

白木 七青海 (象潟中学校)

저는 아직 한국에 가본적은 없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요리나 음식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일본사람과 생각이나 문화가 다르다는걸 알게 되어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분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감스러운건, 일본에 「한국인은, 반일감정이 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일본의 인터넷이나 티비,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보는 사실의 일부를 과장되게 게재하여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과장된 정보를 접한 일본사람이 한국은 그런 나라 라고 오해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한때 편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편견을 가져버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판단하면 안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기 않기 위해선, 한국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으며 한일교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교류바자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람자들에게 말을 걸며 이야기를 하는 한국분들을 봤습니다. 그때 한일이 친해지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일교류의 기회가 많아진다면 관심을 가지기되며, 한국에 대해 편견 없이 판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점점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 가족이나 친구에게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한국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재미있었다고 전해줬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과거에매달리지 않고 서로의 나라를 사랑해주는 양국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니까... 일본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서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기가 있어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서로 교류할 계기를 만들면서 좋은 그러다 보면 계기가 생길 것이고 계기가 생기면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며 한일우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저는 한일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집밥 이 선생

全 彩香 (東京都三鷹市)

「어머님, 국물 색이 빨강지 않네요?」 나는 처음 보는 말간 국물이 신기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새아가, 한국에서는 명절 때 무랑 두부를 같이 넣고 국물을 만든단다」고 말씀하셨다. 이 흥미로운 국의 이름은 바로, 탕국이라고 한다.

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구미 큰집에서 첫 추석을 지냈다. 한국 음식은 늘 내 관심사였지만, 그때까지 제사 음식을 만난 적은 없었다.

아들놈은 평생 만들어줘도 먹고 입만 닦는다며 쓴웃음을 지으시면서도, 탕국이 궁금한 일본 며느리가 기특하셨는지 환한 얼굴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다. 「먼저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야 되는데...」 나는 얼른 새 공책을 꺼내서 표지에 큰 글씨로 '집밥 이 선생'이라 쓰고, 탕국 만드는 비법을 받아썼다. 우리 어머니는 이 씨다.

막내 며느리였던 우리 어머니는 30년 넘게 명절마다 탕국을 만드셨다는데, 옆에서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분명 무서운 큰아버님들 입맛 맞추신다고 많이 고생하셨을 거야.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일본에 돌아온 어느 날, 문득 탕국이 생각났다. 고이 모셔둔 공책을 꺼내 '집밥 이 선생'을 소환했다. 덕분에 탕국은 생각보다 쉽게 완성됐고 웬지 모를 자신감 속에 맛을 봤는데.... 응? 그때 그 탕국 맛과는 뭔가가 달랐다. 공책을 다시 보고 또 봐도, 두부랑 파, 무, 소고기 등 넣어야 할 건 다 넣었는데 말이다.

궁금증이 가시지 않던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내가 만든 탕국을 먹으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법을 철저히 준수해 만든 탕국이지만, 옹기종기 마루에 모여 앉았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티격태격 하던 정겨움이 빠져서 그랬을 거라고. 벌써부터 그게 그리워서라고.

무엇보다 내가 '비법'이라 부르는 오랜 정성 속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어머니도 숨을 쉬고 계실 것이며, 앞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탕국을 만들며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그날 채워지지 않던 빈자리는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

특별할 것도 없는 재료에 금방 만들 수 있는 탕국은 내 남편처럼 맛있게 먹고도 고마움조차 보이지 않는 쉬운 음식으로 여기지만, 어머니는 말간 국물 속에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맑은 사랑을 우려내 오신 게 분명하다.

이제부터 나는 어머니가 들으셨어야 할 따뜻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언젠가 나도 예쁜 새아가를 만날 때까지 내 보물 '집밥 이 선생' 공책을 차곡차곡 채우며 일본과 한국을 사랑할 거다.

아름다운 말 '챙기다'

岩出 志保 (国士舘大学)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챙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챙기다'라는 말은 제가 한국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인 것 같고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이 챙겨주는 친절한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일본사람도 없고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외국인 한국에서 혼자 사느라 너무 외로웠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항상 연락도 해주고 신경을 써 주는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유학한지 반 년이 지났을 때쯤,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가족과 친한 일본 친구 몇 명에게서 밖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외로워져서 기숙사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한국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간 저에게 그 한국친구는 생일파티를 해 줬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외롭던 마음이 없어지고 행복함과 감사함이 가득한 잊지 못할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친구와는 유학이 끝나고 일본에 돌아온 지금도 연락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항상 잘 챙겨주신 분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챙기다'라는 말. 그런데 이 '챙기다'라는 말은 일본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사람들에게 '챙기다'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해도 딱 맞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때 이것이 언어의 재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한국어에는 일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언어의 재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주 좋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이라도 일본사람인 제가 한국사람의 마음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챙기다'가 한국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 만큼 한국사람들은 남을 챙기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챙기는 그 마음이 앞으로의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챙기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저도 앞으로 더 주위를 챙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일교류, “알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못 만든다.”

石川 智香子 (北海道札幌市)

2010 년의 어느 여름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을 먹고 있던 나는 '빅뱅'이라는 한국 가수를 보게 되었다. '빅뱅'을 보자마자 그 모습에 반해버렸고, 그들을 더 알고 싶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한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어졌고, 2013 년 봄에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맹렬히 반대하셨다. 부모님께 매일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반대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서른 번이 넘는 설전 끝에 허락을 받아냈다. 마침내 맛볼 수 있게 된 유학에선 많은 것에 도전하고, 배우고, 좌절감도 맛보았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 경험은 내 인생의 보물이 되었다. 귀국 후, 유학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처럼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외국 친구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등 행복하게 말하는 내 모습에 부모님은 놀라셨는지, 두 번째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는 바로 허락해 주셨다. 나는 지금까지 총 세 번 유학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의 한국 홍보로 마음을 열고 한국을 보게 된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올해로 사귀 지 3 년이 되는 한국인 남자친구까지 반겨 주셨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처럼 아직도 모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선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알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다. 어찌 보면 아직도 서로의 입장 차이로 벽을 만들고 있는 한일 양국도, 서로를 솔직히 알고자 한다면, 올해로 51 년된 '알'을 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알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못 만든다.”라는 외국 속담처럼 한국과 일본은 각자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들이 희생하여, 앞서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일교류 작문 콘테스트 덕분에 한국과의 첫만남부터 오늘까지, 약 6 년 간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나의 띠이자,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닭띠의 해 2017 년에는 부디 맛있는 오믈렛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복과 나

飯澤 みくに (北海道札幌市)

"중전마~마~!"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나는 조선시대 왕비 옷인 당의 한복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처음 드라마에서 왕비 옷을 보았을 때 수려한 아름다움에 눈이 사로잡혔다. 그 옷은 치마 자락에 금박으로 장식된 볼륨이 들어간 치마를 입고, 저고리 위에 당의라는 윗옷을 덧입어 "당의 한복"이라 불려졌다고 한다. 나는 화려하면서도 전통적인 당의 한복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어 당의 한복을 맞춤제작까지 하게 되었다.

완성된 당의 한복을 본 순간을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상자를 열었을 때 기대와 설렘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상자 안에는 한 땀 한 땀 정성이 가득 담긴 당의 한복이 들어 있었다. 당의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전하"라고 말하고 보니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가 왕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매일 입고 생활하고 싶을 정도로 당의 한복이 매력적이게 느껴졌다.

나를 매료시킨 단아함과 고귀함이 돋보이는 당의 한복. 나는 그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어서 당의 한복을 입고 외출해 보았다. 그런 나를 본 일본 사람들이 "진짜 예쁘다." "잘 어울리네." 라고 말하면서 당의 한복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져주었다. 게다가 한국 사람도 나에게 "중전마~마~!" 하며 말을 걸어 왔다. 그 한국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문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하지 않을까? 문화는 나라를 아는 수단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기도 하다.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 올림픽,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양국이 성공적인 개최를 향해 협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당의 한복이 연결해준 한국과 나. 앞으로도 양국이 좋은 관계를 계속할 것을 바라면서 오늘도 나는 당의 한복을 입는다.

북촌에서 만난 여성들

宗像 敬子 (東京都目黒区)

나에게는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손녀가 네 명 있다. 하지만 실은 그 중 한 명은 나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아니다.

2008년 4월 1일은 우리가 북촌 한옥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난 날이다. 그 날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07년 6월에 나는 친구와 같이 북촌을 돌아다니던 중 좁은 언덕길을 오르내리다가 길을 잃어 버렸다. 그 때 비탈길 중간에 전통적인 공예품이 진열된 쇼윈도가 보였다. 문이 열려 있어 선뜻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자수를 놓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강한 햇볕 속을 걸어서 땀투성이가 된 우리에게 그녀는 일손을 놓고 오미자차를 내밀었다. 달아오른 몸으로 배어들었던 차가운 차 맛을 잊을 수 없었던 나는 일본에 돌아온 후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여성이 다시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또 한번 만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북촌문화센터로 문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공방을 찍은 사진을 동봉한 첫 한국어 편지에는 북촌에는 공방이 많아서 찾기 힘들다는 답장이 왔다. 그렇다면 스스로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공방을 찾아 다닌 결과, 목련이 만개한 어느 봄날 저녁에 마침내 그 공방을 혼자서 찾아 냈다. 하지만 북촌에 땅거미가 질 무렵의 공방은 아쉽게도 문이 닫힌 상태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몰라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던 바로 그 때 비탈길을 올라오는 커플이 보였다. 서투른 한국어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공방이 정기 휴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북촌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을 만난 덕분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 그녀는 그 공방 주소와 함께 자기 주소까지 알려 주었다. 내 카메라로 그 남매의 사진을 찍었던 것을 계기로 우리는 펜팔을 하게 됐고 그녀는 나를 일본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은 내가 그녀의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내게 떠오르는 일본어 '오바아상'에 대한 이미지는 허리가 구부정하고 비틀비틀 걸으며 가는 머리가 백발인 마른 여성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솔직히 놀랐고 위화감조차 느꼈다. 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외모만을 상상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성숙한 나이 든 사람에게 경애의 마음을 담아서 할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그녀가 "귀엽게 나이를 든 여성"이라는 의미로 나를 할머니 라고 불러 줄 때마다 그 한국어 한 마디가 나를 행복하게 해 준다.

그리운 맛

大島 若子 (福岡県福岡市)

어렸을 때 집 앞에 있는 대형 쇼핑 센터 안에 정말 작은 면 가게가 있었다. 나는 거기서 먹는 냉면이 정말 좋아서 어머니한테 자주 그 가게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난다. 특별한 재료는 없이 그냥 썬 햄, 채썬 오이와 얇게 구운 계란을 썬 것을 면 위에 넣었을 뿐인데 어디에서도 먹어 본 적이 없는 국물 맛이였다. 그 곳의 국물은 평범한 냉면을 특별한 맛으로 바꾸는 마법의 국물이였다. 다른 가게에서도 냉면을 먹어 봤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 가게의 맛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일본식 냉면이였다.

내가 중학생 때 이사를 가고 그 가게도 어느 새 도시 중심으로 이전하고 나서 재개발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 나는 그 냉면과 비슷한 것을 찾아 봤지만 한번도 만 날 수 없었다. 그 가게가 재개발이 끝난 후 다시 돌아 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뻐하며 다시 먹으러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 먹었을 때부터 25 년이상 지난 지금 그 국물이 한국의 냉면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은 내가 그 국물이 한국 냉면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부산에 가서 냉면을 먹었을 때 먹으면서 그 냉면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그 냉면에 대해 찾아 보니 알게 됐다.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오래 전에, 한국 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냉면을 먹었던 것에 놀랐다. 게다가 당시 일본에는 한국 요리 가게가 하나도 없는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일본 식문화와 한국 식문화가 서로 양향을 주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가깝고 먼 나라라고 불리던 시대에 이런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한류 바람이 불기 오래 전에도 한류의 뿌리는 있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후 놀랐던 것이 더 있다. 오랫동안 하카타 명물이라고 생각했던 명란이 원래 한국에서 왔다는 것은 충격적이였다. 그리고 부산에 갔을 때 고구마 케이크를 처음 먹었는데 원래 고구마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양 국에서 각각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 오랜 역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부산에 갈 때마다 먹는 한국식 핫 샌드위치 가게가 이번에 후쿠오카에서도 개점했다고 들었다. 다시 즐거움이 늘었다!